

# 천국은 마치

## 마태복음 13:31-35

먼저 이야기 한 토막나눅니다.

토마스 윌러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큰 보험회사 사장입니다. 하루는, 아내와 함께 어디를 가는데, 차에 개솔린을 넣어야 해서, 주유소를 들렀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기름을 넣어주는 동안에, 토마스는 주유소 주변을 걸으면서, 다리 근육을 쭉 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아내가 신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름 값을 지불하고 나서, 다시 차를 탈 때, 아내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 준 사람에게, “반가웠어.” 토마스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타서, 아내에게, “아는 사람이나봐?”

아내가 답하기를,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알려주면서, 거의 일년 데이트를 한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토마스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여자야.” “만약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보험회사 사장의 아내가 아니라,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었을 것 아니야.”

이 때 아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저 남자 하고 결혼 했으면, 저 남자는 사장이 되고, 당신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을거야.”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보고, 잘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 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각을 바르게 고쳐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에 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 그대로, 하늘 천 나라 국, 하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 하늘 나라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가 펼쳐지는 역사를 가르킬 때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5)

마태복음서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하나님 나라 라고 하지 않고 천국, 하늘 나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불경스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라고 소개하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단어 사용하는 대신으로, 하늘 나라, 천국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 천국은, 하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 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으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신명나는 믿음 삶을 살아갑니다.

세가지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33 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비유입니다. 많이 들으신 비유이지요?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3-4 미터가 되는 나무가 되어, 새들이 날아들어오고, 가지에 동지를 만들게 됩니다.

겨자씨 보셨나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작은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가 됩니까?

요즘 저희 집 밭에, 이것 저것 많이 자라나고 있는데, 참 놀랍습니다. 열무씨, 호박씨, 배추씨, 사실 이들 씨앗들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자라서, 열무가 되고, 호박이 열리고, 배추가 생기고.. 이 신비함에 놀랍습니다. 작은 씨앗을 얹잡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작은 것들 통해서, 작은 곳에서, 작은 자들을 통해서, 작은 만남을 통해서, 작은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작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작은 동네, 별 볼일 없는 동네 나자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 분이 작은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큰 것 선호합니다. 크면 좋습니다. 클수록 더 좋은 것이라고 야단입니다. 큰 건물들, 큰 백화점들, 큰 운동장들, 그리고 큰 교회들을 선호합니다. 교회도 블랙 락 교회처럼 크면 성장하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야단입니다. 큰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이고, 작은 나라들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들, 작은 사람들, 작은 일들, 작은 가정들에게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잘 보지 못하고 있지만, 작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작은 곳에서, 작은 것에서, 작은 만남에서, 작은 자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동안 저는, 왜 나는 큰 교회 목사처럼, 크게 사역 못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12 년이 넘게 있는가?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께서, 세계 방방 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를, 어릴 적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우울해 하고, 자책까지 하고 실망하며 살았습니다.

3 년 전에, 연장교육을 받을 때에, 대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코카콜라가 아직 소개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 곳에도 작은 교회는 있다고 하시면서,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곳, 작은 사건, 작은 만남, 작은 사람들, 작은 교회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된 후에, 열등의식, 근거없이 생긴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감사함으로, 나는 작은 교회 목사다. 나는 다민족이 함께 섬기는 작은 웨어필드 그레이스교회 목사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처럼 보이는 작은 곳에서, 작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조용한 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누룩은 조용히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작은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조용히 부풀어서 빵이 되게 합니다.

요란하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일하십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3 월 중순 부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정원을 자주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에 옮겨 심어 놓았던 대나무가 봄이 되면서 솟아 나왔습니다. 신기하고 고마워서, 매일, 하루가 멀다고, 가서 얼마큼 자랐나 보았습니다. 쑥쑥 자라나서, 이제 제 키의 두배가 되어 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자라나는 대나무를 보면서, 생명의 약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역사를 보았습니다.

대나무 뿐 만 아니라, 열무, 배추, 오이, 호박, 가지, 등등이 조용히 자라 올라오는 것을 보고, 참 놀라고 있습니다.

길가에 여기 저기 피어있는 예쁜 野生花들도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 줍니다.

나무들을 보세요.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으면서,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필요한 산소들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광합성 운동이라고 하지요? 나무들이 없으면, 지구는 황폐하게 됩니다.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자라나서, 조용히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에게 꼭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나무들을 보면서, 조용히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조용히 자연세계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5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지막 구절을 다른 성경 해석에는, 은밀한 중에, 조용한 가운데, 너희 기도를 들으시라.”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치유할 바를 치유받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역사하십니다.

조용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움과 기쁨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개인 보관함을 운영하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다가 금이나 은, 돈들을 묻어 두었습니다. 특별히, 외부 침략을 받게 되면, 빼기지 않으려고, 남 몰래 자기만 아는 곳에 묻어 두었습니다.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상치 않게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땅 속에 누가 묻어 둔 보화를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일확천금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움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예기치 않은 만남에서, 예기치 않은 때에, 찾아와 기쁨을 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4 달이 넘어갑니다.

예기치 않은 만남, 기쁨을 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황근희 권사님과 최유미 교우님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만남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만남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0 시 회중 영상 예배 시간에도, 조지아에서, 놀스 케로라이나에서, 플로리다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하시다가, 이사가셨던 가족입니다. 이사가신 지가 7 년, 5 년, 4 년이 넘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10 시 예배에 참여하십니다. 저는 놀라며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 가운데 기대하지 않은 때에,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와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사실 가장 큰 놀라움은, 제가 여러분이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지구에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더 놀라운 역사는, 저는 강화도 옆에 붙어있는 작은 석모도 태어났고, 여러분은 저랑 다른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미국에 와서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70 년대에, 어떤 분은 80 년대에, 어떤 분은 90 년대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친교하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 아닙니까?

앞으로, 또 어떤 놀랍고 기쁜 일들을 만나고, 놀랍고 기쁜 만남을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만나게 될 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깜짝 놀라고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 처럼 작은 것이, 작은 곳에서, 누룩처럼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작은 곳에서 작게 조용하게 일하시면, 하염없는 놀라운 기쁨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